

▶◀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유스토 형제를 당신께 맡기오니 그의 허물을 새털같이 가벼이 해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연옥에서 한시라도 벗어나 천상복락을 누리게 해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의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으로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유족과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공과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자살을 택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함과 함께, 비록 냉담중이지만 우리 신앙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연민의 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6년 부산교구 송기인 신부로부터 유스토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2년 6월 대선 후보 때 혜화동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희미하게 믿는다” 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에 김추기경은 “어려울 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며 신앙생활을 다시 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성령의 열매인 “굳셈과 지혜의 눈” 이 열려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본들 하느님 없이 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성서에서는 자살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나타나 있지 않다. (판관 9,54; 16,30;2 마태14,41-46). 성서에서는 자살을 직접 금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다. 때로는 공동선(公同善)과 조국이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기도 하였다. 판관기 16장 30절에는 삼손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많은 적군을 죽인 사실을

말하며, 사무엘 상권 31장 4-5절에서는 사울과 그 시종 사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마태오 복음 27장 5절에는 유다스가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서에 나타나는 자살의 직접적인 사례들은 역사 안에서 발생한 사실로서 언급할 뿐이지 그 윤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간접적 자살이나 선의의 자살 사례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자기를 죽이도록 신적 영감을 받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톨릭의 공통 견해는 자살은 그 자체가 죄며, 따라서 항상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자살은 십계명의 제5계인 "살인하지 마라"를 직접 어기는 행위다. 곧 자신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의 모든 형태는 직접 살인에 해당한다.

둘째 생명에 대해서는 하느님만이 절대권을 가지고 계시는데(신명 32,39참조). 자살은 이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육체와 생명에 대하여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진리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자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은 인간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지상권의 침해다.

셋째,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자연 법칙에 반대되며 자신을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더 이상의 인격 성장을 막아 버려 하느님께서 부르신 자기 완성을 향한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인 대인 관계에서 공동 책임과 서로의 영향 등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로 자살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쉽게 자살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 독재자에게 항거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억으로 무력 앞에 인간의 자유를 시위하는 일 등은 현시대의 특성이기도 하며,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편만을

정당하다고 말하기 전에 ''자살''이라는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부모들의 사랑이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려는 군인들의 조국애 등은 특별한 종류로 보아 ''자살이다'' ''불가(不可)하다''라고 쉽사리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최고의 선(善)이지만 절대적인 선은 아니기에 더 높은선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서 나오는 숭고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문화, 국가 정치, 성(性), 연령, 절기, 사회 조건-에서 생긴다. 곧 일정한 조건에서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자살은 소외, 마음의 고통, 고립, 분노, 죄책감, 심한 우울증 같은 감정들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무력감을 느껴 자살하기도 한다. 자살 사례 가운데는 우발적인 충동에서라기보다는 계속되는 사회 경제적 압박에 따른 자살이 두드러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많은 경우 자살은 사회적 죽음의 결과이기도 하다. 곧 자살 기도는 흔히 최후의 방편으로서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들에게 통교와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버림을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함으로써 도와 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절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화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이러한 자살을 방지하는 데 노력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먼저 개인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된 교육에 힘써야 하며, 정신 질환이나 심리적 불안정 요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아 주어야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구

분산과 노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적 배려 등에 신경을 써야겠다.

또한 자살을 방지하는 일이 자살 기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일부 현실주의자들의 비난은 수용될 수 없다. 자살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더욱 효과 있는 도움을 호소하는 최후의 부르짖음이다. 그러므로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감시가 아니라 사랑에 찬 관심과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랑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는 광범위하다. 자살의 깊은 원인을 발견해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원인을 없애야 한다. 따라서 자살을 방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정제를 투여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의 일반적인 악조건까지도 없애는 작업을 포함한다. 곧 윤리 원칙들이 문화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문화가 가장 고상하고도 영원한 가치인 윤리적 가치에 따라 쇠신되어야 할 것이다.

죄가 되는 자살 행위란 개인적으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완전히 자유 의지로 끊는 것이다. 그래서 자살은 현세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큰 잘못이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현실 생활을 해 나아가는 동안 "하느님께 받은 소명"을 봉사의 정신과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보존하려 들지 않고, 절대권을 가지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태도라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았듯이 그 원인 면에서 볼 때, 자살자에 대해 무조건 단죄하기보다는 사목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법에 따라 자살자가 주위에 악한 표양을 보이지 않았다면 공개적 죄인 취급을 하기보다는 그 인간적 행위의 장애 요인을 참작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사목적 태도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법에 따른 자살자에 대한 미사와 연도

1917년에 만들어진 교회법에서는 장례미사를 금지하는 사람으로 이단자, 이교자, 배교자 그리고 자살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법전에는 자살한 사람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형법의 조항은 좁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연미사는 물론 장례미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살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대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죄를 지은 영혼이기에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당소식

◎ Earl 신부님의 사제서품 40주년을 우리 본당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음으로 갖는 미사지향을 Earl 신부님을 위해 바치시기 바랍니다.

◎ 사목회의 안내
일시 : 5월 31일 미사후
장소 : 교육관

◎ 5월 울뜨레야 모임 안내
일 시 : 5월 27일 (수) 저녁 7:30분
장 소 : 교육관

◎ 로고스회(성경모임)안내
5월 29일(금) 미사 후
▶ 5월 27일(수) 미사 없습니다.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6월부터 시작하는 성탄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포스터가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5월 구역모임
워털루 1구역: 30일(토) 오후7시 류무열 형제님댁
워털루 2구역: 30일(토) 오후7시 이은희 자매님댁
키치너 구역: 30일(토) 오후7시 교육관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키치너 구역 5월
- ▶ 캠브리지 구역 6월
- ▶ 브랜포드 구역 7월
- ▶ 워털루 1구역 8월
- ▶ 워털루 2구역 9월
- ▶ 워털루 3구역 10월
- ▶ 워털루 4구역 11월

봉사는 1달에 2회이고, 봉사 요일은 각 구역장이 추후 공지합니다.

◎ 주보 및 교우주소록 광고 접수합니다.
광고 접수문의 및 관리자 :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 ☎ 519 883 8488 Ext 1

◎ 신중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악수,주님의 기도 때 손을 잡는 것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인사로 대신하십시오. 성당에 들어올 때 손소독, 천교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 본당신부 단상(斷想)

성모성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는 "성모님께 나아가서 빈 손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모공경을 강조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2009년 5월 17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900.00
교무금 : \$ 50.00 222(50)
교황청헌금:\$ 115.00 184(10) 196(10) 204(5) 207(20) 214(10) 224(20) 226(20) 232(20)
감사금 : \$ 100.00 익명
성전건립 : \$ 0
소성당 : \$ 0
합계 : \$ 1165.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23호 2009. 5. 24.

주님승천대축일
미사전례

해설 신계연 차주 해설 박명옥

성가
입당 (140) 주의 승천 찬미하세
봉헌 (342) 제물 드리니
성체 (179) 주의 사랑 전하라
퇴장 (141) 죽음을 이긴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독서
5월 24일 윤명원 윤명희
5월 31일 노동원 노성은
6월 7일 박용대 박명옥

봉헌
5월 24일 백옥현 박인선
5월 31일 윤명원 윤명희
6월 7일 노동원 노성은

복사
5월 24일 류지홍 호동
5월 31일 최예슬 이수민
6월 7일 김근영 김건우

친교
5월 24일 장미림 5월 31일 백함림
6월 7일 신비림 6월 14일 환희림